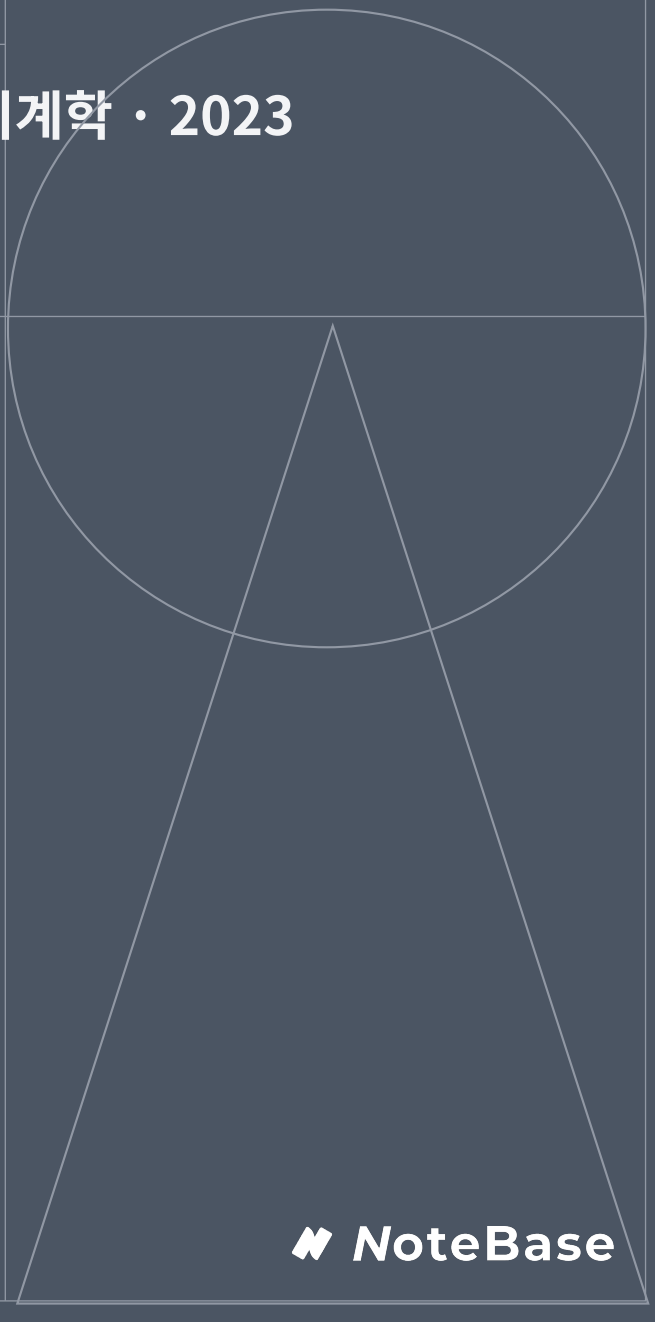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3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3

문 1. 회계와 경영자의 수탁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의 성과를 보고할 책임은 최대주주에게 있다.

② 경영자의 책임은 소극적 책임에서 적극적 책임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③ 소유경영기업은 대리인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외부에 회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경영자의 수탁책임의 범위와 기업이 외부에 제공하는 회계정보량은 반비례 관계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경영자의 수탁책임은 맡겨진 자산을 잘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성과를 달성할 책임**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소극적인 보전 책임에서 적극적인 경영 책임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수탁책임은 기업의 자원을 맡아 관리하는 경영자가 그 자원을 적절히 보전·활용하고, 관리와 경영의 결과를 자원 제공자 등에게 설명할 책임이다. 회계정보는 이러한 책임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① X: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고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할 책임의 주체는 **경영자**이다. 최대주주는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소유자라는 지위를 가리키므로,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자의 성과 보고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주주가 직접 경영한다면 경영자라는 지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② O: 소극적 책임은 맡겨진 자산의 분실·횡령·낭비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적극적 책임은 그 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따라서 경영자의 책임이 자산 보전 중심에서 경영 성과에 관한 책임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③ X: 소유자와 경영자가 같으면 소유자와 전문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가 줄어들 수 있지만, **외부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기업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회계정보가 필요하다. 소유경영기업에도 채권자 등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모든 대리인비용이 사라진다거나 외부 정보 제공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X: 수탁책임의 범위가 자산 보전에서 자원 운용과 경영 성과로 넓어지면 이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정보의 내용과 범위도 일반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책임 범위와 정보량을 **반비례 관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책임이 넓어질수록 더 다양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며, 정보량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수학적 법칙은 아니다.

NoteBase

문 2.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정보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지만,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③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과 정치풍토 등과 같은 정보는 고려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재무보고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정치적 사건과 정치풍토를 비롯한 다른 원천의 정보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의 중립성이 이러한 환경 정보의 배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반목적재무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대여자·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이들이 기업의 현금흐름 전망과 경영진의 자원 관리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 O: 재무보고서는 기업 전체의 가치를 직접 제시하는 평가보고서가 아니다. 자산·부채·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기업가치를 추정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기업 전체의 가치와 동일시할 수 없다.

③ O: 자원 제공과 관련된 판단에는 **지분상품·채무상품의 매수·매도·보유**와 대여 및 다른 신용의 제공·결제가 포함된다. 재무정보는 새로 투자하거나 빌려줄 때뿐 아니라 기존 투자나 신용 관계를 유지·회수할 때도 유용하다.

④ X: 재무보고서만으로 이용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이용자는 다른 원천에서 얻는 일반경제상황과 전망, **정치적 사건과 정치풍토**, 산업과 기업의 전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립성은 정보를 선택·표현할 때 편의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지,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치적 환경 정보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NoteBase

문 3.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실물자본유지개념 관점에서 (주)한국의 당기손익은?

- (주)한국은 기초 설립자산 현금 ₩1,000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 기초에 상품A를 단위당 ₩200에 5개를 매입하고, 기중에 4개를 단위당 ₩250에 판매하였다.
- 당기 말 자산은 현금 ₩1,000과 상품A 1개이다.
- 당기 말 상품A의 현행원가 ₩300, 판매가 ₩400
- 당기 일반물가인상률 10%

① 손실 ₩200

② 손실 ₩100

③ 이익 ₩300

④ 이익 ₩4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실물자본유지는 기초의 영업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현행원가**로 판단한다. 상품 5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1,500원에 비해 기말 순자산은 1,300원이므로 **200원의 손실**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기초에 보유한 생산능력이나 영업능력을 기말에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보전한 후의 증가분을 이익으로 본다. 이 문제는 상품 A 5개를 취득하여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기말에도 그와 같은 상품 5개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제시된 자료에는 부채나 기중 출자·분배가 없다.

1. 유지해야 할 기초 영업능력의 기말 금액을 구한다. 상품 A의 기말 현행원가는 1개당 300원이므로, 동일한 5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5 × 300 = 1,500원이다. 기초 취득원가 1,000원이 아니라 **기말에 같은 영업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1,500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2. 기말 순자산을 현행원가로 측정한다. 기말에는 현금 1,000원과 상품 A 1개가 남아 있다. 상품 1개는 현행원가 300원으로 평가하므로 기말 순자산은 1,000 + 300 = 1,300원이다.

3. 기말 순자산에서 유지해야 할 자본을 차감한다. 당기손익은 1,300 − 1,500 = −200원이므로 200원의 손실이다. 남은 상품 1개 외에 4개를 다시 사려면 1,200원이 필요한데 현금이 1,000원뿐이라는 점으로도 부족액 200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물가인상률 10%는 화폐의 일반구매력 유지와 관련된 자료이며, 이 문제의 **실물 영업능력 유지 기준은 상품의 현행원가**이다. 기말 판매가 400원도 상품을 다시 확보하는 원가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계산한 손실 200원은 선택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재무제표의 표시'에서 제시한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진 경우에도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된다.

② 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③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④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계속기업 기준은 무조건 적용되는 전제가 아니다. 경영진에게 **청산 또는 경영활동 중단 의도**가 있거나 그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다른 작성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가 있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한 선택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계속기업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적용한 작성 기준,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중단 의도가 있어도 계속기업을 전제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② (O)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특정 공시라도 그 공시로 제공될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생략할 수 있다. 중요성은 금액뿐 아니라 정보의 성격과 재무제표 전체 맥락을 고려해 판단한다. 단순히 작성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한 재무제표 정보에는 **발생기준**을 적용한다. 현금을 주고받은 때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거래나 사건의 효과가 발생하여 해당 인식 요건을 충족한 시기에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을 인식한다. 현금흐름 정보는 실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 주므로 이 원칙의 예외이다.

④ (O)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공시하면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한 재무제표가 된다고 본다. 이때 공정한 표시는 거래와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충실히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고 주석만 추가하면 언제나 공정한 표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계속기업 기준의 적용 예외를 부정한 ①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5.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될 수 없는 항목은?

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채무상품 평가손익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으로 선택한 지분상품 평가손익

③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익

④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FVOCI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처분 후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누적액을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재분류조정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이후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이다. 여기서는 각 항목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에 재분류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① X: FVOCI 채무상품의 평가손익은 보유 중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되지만, 매각 등으로 금융자산을 제거하면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따라서 재분류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O: FVOCI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은 **처분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누적액을 이익잉여금 등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는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재분류조정과 다르다.

③ X: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면서 생긴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다. 이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때** 관련 누적액을 처분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재분류하므로, 재분류할 수 없는 항목은 아니다.

④ X: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우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이후 예상 매출이나 이자 지급처럼 **위험회피 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예상거래가 비금융자산·비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으로 이어지면 누적액을 그 원가 등에 직접 반영하므로, 모든 경우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의 20×1년 비교재무상태표 일부내용과 보충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20×1년도 영업순환주기(정상영업주기)는? (단,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20×1년	20×0년
…	…	…
매출채권	?	₩4,000
재고	₩1,000	?
…	…	…

- 20×1년 당기 매출원가 ₩20,000, 재고매입액 ₩18,000
- 재고는 원가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
- 당기 중 매출 및 매출채권 관련 현금회수액 ₩26,000

① 36일

② 45일

③ 72일

④ 81일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영업순환주기는 **재고를 판매하는 기간과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의 합**이다. 주어진 자료로 계산한 재고자산회전기간 36일과 매출채권회전기간 45일을 더하면 81일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영업순환주기는 재고를 취득한 뒤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따라서 재고자산회전기간과 매출채권회전기간을 더한다. 문제에서 1년을 360일로 가정하므로, 각 평균 잔액을 해당 연간 거래액으로 나눈 값에 360일을 곱한다.

1. 기초재고와 평균재고를 구한다. 표의 20×0년 말 금액은 20×1년의 기초 금액이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매입액 − 기말재고이므로 기초재고는 20,000 − 18,000 + 1,000 = 3,000원이다. 평균재고는 $\frac{3,000 + 1,000}{2} = 2,000$원이다.

2. 재고자산회전기간을 계산한다. 재고는 원가로 측정되어 있으므로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와 대응시킨다. 재고자산회전기간은 $\frac{2,000}{20,000} \times 360 = 36$일이다.

3. 당기 매출액과 기말 매출채권을 구한다. 원가에 20%를 가산하여 판매했으므로 매출액은 $20,000 \times \left(1 + \frac{20}{100}\right) = 24,000$원이다. 매출액의 20%가 이익이라는 조건과는 다르다. 기초 매출채권 4,000원에 당기 매출액을 더하고 매출 및 매출채권 관련 현금회수액 26,000원을 차감하면 기말 매출채권은 4,000 + 24,000 − 26,000 = 2,000원이다. 현금회수액에는 당기 매출뿐 아니라 기초 매출채권의 회수도 포함될 수 있다.

4. 매출채권회전기간을 계산한다. 평균 매출채권은 $\frac{4,000 + 2,000}{2} = 3,000$원이다. 주어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채권회전기간을 구하면 $\frac{3,000}{24,000} \times 360 = 45$일이다. 기말 잔액만이 아니라 **기초·기말의 평균 잔액**을 사용한다.

5. 영업순환주기는 36 + 45 = 81일이며, 선택지 ④와 일치한다. 매입채무 지급기간까지 차감하는 현금전환주기와 달리, 이 문제의 영업순환주기는 재고 보유기간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더한 값이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의 20×1년 재무상태표 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8,000이고, 모든 유동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주)한국의 당좌예금은?

국내통화	₩200	외국환 주화	€1
수입증지	₩400	우편환	₩500
보통예금	₩300	당좌예금	₩ ?

양도성예금증서(20×1년 11월1일 취득, 20×1년 9월 1일 발행 만기 6개월) ₩600

20×1년 평균 기준 환율 : €1=₩1,500

20×1년 말 기준 환율 : €1=₩1,000

① ₩5,400

② ₩5,500

③ ₩6,000

④ ₩6,6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외화 현금에는 **기말 환율**을 적용하고, 양도성예금증서는 **취득 시 잔존만기가 4개월**이므로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당좌예금 외의 현금은 ₩2,000이므로 당좌예금은 ₩8,000에서 이를 뺀 ₩6,00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현금및현금성자산 총액 ₩8,000에서 당좌예금 외에 포함되는 항목을 빼면 당좌예금을 구할 수 있다. 먼저 각 항목의 포함 여부와 외화의 환산 기준을 확인한다.

국내통화 ₩200과 우편환 ₩500은 현금에 포함된다. 우편환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이다. 보통예금 ₩300과 구하려는 당좌예금도 요구불예금이므로 현금에 포함된다.

외국환 주화 €1은 외화 현금으로서 **기말 환율**을 적용한다. 20×1년 말 환율이 1유로당 ₩1,000이므로 원화 환산액은 ₩1,000이다. 재무상태표의 기말 잔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평균 환율 ₩1,500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증지 ₩400은 세금·수수료 등의 납부에 쓰는 증표이며 일반적인 지급수단인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계에서 제외한다.

양도성예금증서 ₩600의 발행일은 20×1년 9월 1일이고 만기는 발행 후 6개월이므로 만기일은 20×2년 3월 1일이다. 20×1년 11월 1일 취득 시점부터 만기까지는 4개월이다. 현금성자산은 확정된 금액으로 쉽게 전환되고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상 **취득 당시 만기까지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 증서는 취득 시 잔존만기가 4개월이므로 제외한다. 기말에 만기가 약 2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는다.

당좌예금 외에 포함되는 금액은 200 + 500 + 300 + 1,000 = 2,000원이다. 따라서 당좌예금은 8,000 − 2,000 = 6,000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의 20 × 1년도 회계자료 중 일부인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은?

기초상품재고	₩240	당기상품매입액	₩400
기말상품재고	220	당기현금매출액	100
매출총이익	180	기초매출채권	160
매출채권회수액	520		

① ₩120

② ₩140

③ ₩160

④ ₩18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출채권은 **기초 잔액에 외상매출을 더하고 회수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재고와 매출총이익으로 구한 총매출액 600원에서 현금매출 100원을 제외하면 외상매출은 500원이므로, 기말매출채권은 14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표의 금액 단위는 원이며, 구할 값은 20×1년 말의 매출채권이다. 먼저 재고 자료와 매출총이익으로 총매출액을 구한 다음, 현금매출을 제외하여 외상매출액을 계산한다. 제시된 자료 외의 대손·반품·할인 등은 별도로 가정하지 않는다.

기초상품재고 240원과 당기상품매입액 400원을 합하면 판매 가능한 상품원가는 640원이다. 여기에서 기말상품재고 220원을 빼면 당기에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된다.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이므로 $240 + 400 - 220 = 420$원이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매출원가 420원에 매출총이익 180원을 더한 $420 + 180 = 600$원이 당기 총매출액이다.

현금매출 100원은 판매 시 대금을 바로 받았으므로 매출채권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총매출액에서 이를 뺀 **외상매출액**은 $600 - 100 = 500$원이다.

기말매출채권은 기초 잔액에 외상매출을 더하고 채권 회수액을 빼서 구한다. 기초매출채권은 160원, 외상매출액은 500원, 매출채권회수액은 520원이므로 $160 + 500 - 520 = 140$원이다. 회수액은 채권의 감소이므로 차감하고, 현금매출액을 여기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은 140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20×1년 중 증권시장에서 주식A와 주식B를 취득한 후, 20×3년 중 모두 처분하였다. 주식 거래가액 및 보유 기간 중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두 주식을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각 분류 방법에 따른 ㈜한국의 20×3년 당기손익의 차이는?

주식	20×1년 중 취득원가	20×1년말 공정가치	20×2년말 공정가치	20×3년 중 처분가 (공정가치)
A	₩200	₩160	₩240	₩260
B	400	600	500	360

① ₩80

② ₩100

③ ₩120

④ ₩14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FVPL에서는 20×2년 말 공정가치와 처분가의 차이를 20×3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두 주식에서 합계 12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FVOCI로 지정한 **지분상품은 처분해도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두 분류의 당기손익 차이는 12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이 문제의 자산은 채무상품이 아니라 주식인 지분상품이다. FVPL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FVOCI로 지정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구하려는 것은 전체 보유기간의 손익이 아니라 20×3년 한 해의 당기손익 차이이다.

1. FVPL의 20×3년 손익을 구한다. 전기 말 평가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20×2년 말 공정가치가 20×3년의 기초 장부금액**이다. 주식 A는 260 − 240 = 20원의 이익, 주식 B는 360 − 500 = −140원, 즉 140원의 손실이다. 두 주식의 합계는 20 − 140 = −120원으로, 당기손익에 120원의 손실이 반영된다. 취득원가와 처분가를 바로 비교하면 과거 연도의 가치 변동까지 포함하게 된다.

2. FVOCI 지분상품의 20×3년 당기손익 영향을 구한다. A의 가치 상승 20원과 B의 가치 하락 140원은 당기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다. 처분 시에도 이 주식에 관한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누적 금액을 자본 내에서 이익잉여금 등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는 당기손익 인식이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가치 변동과 처분이 20×3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0원이다.

3. 두 분류의 차이를 비교한다. FVPL의 당기손익 영향은 −120원, FVOCI의 당기손익 영향은 0원이므로 FVPL 쪽 당기손익이 120원 더 작다. 차이의 금액 120원은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FVOCI 채무상품의 처분 시 재분류 규칙을 이 문제의 주식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재고자산의 가격결정방법으로 선입선출을 가정한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입선출 소매재고법 원가율은 6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주)한국의 당기 매출총이익은?

기초재고 원가	₩100	기초재고 판매가	₩400
당기매입 원가	600	당기매입 판매가	?
판매가 순인상액	200	판매가 순인하액	100
순매출액	900		

① ₩200

② ₩300

③ ₩400

④ ₩5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의 원가율에는 **당기 매입분만 반영**한다. 원가율 60%로 구한 기말재고 원가는 ₩300이고, 매출원가는 ₩400이므로 순매출액 ₩900에서 차감한 매출총이익은 ₩50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소매재고법은 판매가로 파악한 기말재고에 원가율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의 원가를 추정한다. 선입선출을 가정하면 기초재고가 먼저 판매되고 기말재고는 당기 매입분에서 남으므로, **원가율 계산에는 기초재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저가기준이 아닌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이므로 판매가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모두 반영한다. 이하 금액의 단위는 원이다.

당기매입 판매가를 x라 하면 당기 매입분의 조정된 판매가는 x에 순인상액 200을 더하고 순인하액 100을 뺀 금액이다. 당기매입 원가 600과 원가율 60%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frac{600}{x+200-100} = 0.6$$

$$x + 100 = 1{,}000$$

따라서 당기매입 판매가는 900원이다.

기말재고 판매가는 기초재고 판매가에 당기매입 판매가와 가격 변동을 반영한 후 순매출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400 + 900 + 200 − 100 − 900 = 500원이므로, 판매가 기준으로 500원의 재고가 남는다.

기말재고 원가는 기말재고 판매가에 선입선출 소매재고법 원가율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500 × 0.6 = 300원이다. 이 300원은 판매가가 아니라 **기말재고의 원가**이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원가에 당기매입 원가를 더하고 기말재고 원가를 빼서 구한다. 100 + 600 − 300 = 400원이다. 기초재고는 원가율 산정에서는 제외하지만, 전체 판매가능상품의 원가와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포함한다.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므로 900 − 400 = 500원이다. 따라서 당기 매출총이익은 ₩500이며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운송업체인 (주)한국은 20×1년 초 수송기로 사용되던 중고 항공기A(공정가치 ₩1,000, 잔존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400)와 신형 여객용 항공기B(공정가치 ₩2,000, 내용연수 12년, 잔존가치 ₩400)를 ₩2,400에 일괄 매입하였다. (주)한국은 항공기A를 수리하여 여객용으로 교체(자산인식요건 충족,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변화 없음)하고, 항공기B는 시운전 후, 두 항공기 모두 20×1년 초부터 영업에 사용하였다. 20×1년 두 항공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또는 비용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20×1년 말 항공기A의 장부가액은? (단, (주)한국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연수합계법을 사용한다)

항공기A 취등록세 ₩200 항공기B 취등록세 ₩500
항공기A 재산세 1,500 항공기B 재산세 200
항공기A 여객용 교체 400 항공기B 시운전 200
항공기A 취득과정운반((주)한국이 부담) ₩200

① ₩1,080
② ₩1,120
③ ₩1,240
④ ₩1,36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일괄 매입대금은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고, 항공기 A에 직접 귀속되는 자본적 지출을 더하면 취득원가는 1,600원이다. 잔존가치 400원을 뺀 금액에 연수합계법의 첫해 상각률을 적용한 감가상각비가 480원이므로 기말 장부가액은 1,12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구하는 금액은 항공기 A의 20×1년 말 장부가액이다. 먼저 일괄 취득대가를 A와 B의 상대적 공정가치로 나누고, A에 직접 관련된 원가를 더한 뒤 당기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두 항공기는 연초부터 사용했으므로 A에 대해 1년분을 상각한다.

1. A에 배분할 매입대금을 구한다. A와 B의 공정가치는 각각 1,000원과 2,000원이므로 A의 배분액은 $2{,}400 \times \frac{1{,}000}{1{,}000+2{,}000} = 800$원이다. A의 공정가치 1,000원을 그대로 취득원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일괄 대가를 배분**한다.

2. A의 취득원가를 확정한다. A의 취등록세 200원, 취득과정 운반비 200원은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이다. 여객용 교체비 400원은 문제에서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으므로 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A의 취득원가는 800 + 200 + 400 + 200 = 1,600원이다. **보유에 따른 재산세 1,500원은 당기 비용**이므로 원가에 더하지 않는다. B의 취등록세·재산세·시운전비는 A의 원가가 아니므로 A에 배분하지 않는다.

3.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A의 잔존내용연수는 4년이며, 교체 후에도 내용연수와 잔존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상각대상금액은 1,600 − 400 = 1,200원, 연수의 합계는 4 + 3 + 2 + 1 = 10이다. 첫해 상각률은 $\frac{4}{10}$이므로 감가상각비는 $1{,}200 \times \frac{4}{10} = 480$원이다. 중고 자산이라도 이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잔존내용연수 4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기말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1,600 − 480 = 1,120원이다. 이 금액은 선택지 ②와 일치한다. 잔존가치 400원은 상각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반영했으므로 기말 장부가액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20x1년 초 기계장치A(취득원가 ₩2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원가모형 적용)를 취득했으며,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이용한다. 기계장치A 관련 측정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x2년 말 기계장치A 관련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은? (단, 회수가능액의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의한 것이다)

시점	공정가치	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20×1년 말	₩110	₩30	₩120
20×2년 말	160	20	80

① 손상차손 ₩10

② 손상차손 ₩20

③ 손상차손환입 ₩30

④ 손상차손환입 ₩5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120원**을 넘을 수 없다. 20×2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이 90원이므로 손상차손환입은 3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줄어든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환입할 때는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20×1년 말 손상차손을 계산한다. 취득원가 200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5년이므로 연간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frac{200-0}{5}$ = 40원이다. 손상 전 장부금액은 200 - 40 = 160원이다. 표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는 110 - 30 = 80원이고 사용가치는 120원이므로, 회수가능액은 120원이다. 따라서 손상차손 160 - 120 = 40원을 인식하여 기말 장부금액은 120원이 된다.

2. 20×2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을 구한다. 남은 내용연수는 4년이므로 20×2년 감가상각비는 $\frac{120-0}{4}$ = 30원이다. 환입 전 장부금액은 **120 - 30 = 90원**이다. 최초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 40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3. 20×2년 말 회수가능액과 환입 한도를 비교한다. 표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는 160 - 20 = 140원이고 사용가치는 80원이므로 회수가능액은 140원이다. 그러나 손상이 없었다면 장부금액은 200 - 40 × 2 = 120원이 된다. 따라서 회수가능액이 140원으로 회복되어도 **장부금액은 120원까지만** 높일 수 있다.

4. 환입 후 허용되는 장부금액 120원에서 환입 전 장부금액 90원을 빼면 손상차손환입은 30원이다. 따라서 ③과 일치한다. 140 - 90 = 50원을 전부 환입하면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NoteBase

문 13. 유형자산의 손상 인식과 비교할 때,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만, 자산재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다.

② 공정가치의 하락 만이 아닌 상승 시에도 기존의 장부금액과의 중요한 차이 금액을 인식한다.

③ 손상차손 인식은 의무사항이지만 자산재평가 모형의 적용은 선택사항이다.

④ 재평가의 빈도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이 경미한 경우, 3년 또는 5년마다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재평가손익이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재평가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동일 자산에 누적된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하지만, 동일 자산의 과거 재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을 되돌리는 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반대로 **재평가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이며, 동일 자산의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그 잔액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손상차손도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이지만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은 재평가 감소로 처리한다. 따라서 손상은 모두 당기손익, 재평가손익은 모두 기타포괄손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O) 재평가모형은 신뢰성 있게 측정한 공정가치를 반영하므로 장부금액을 낮추는 조정뿐 아니라 높이는 조정도 할 수 있다.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생기면 이를 반영하도록 재평가한다. 손상 인식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줄이는 절차이며, 추후 요건을 충족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가능하다. 재평가의 상향 조정과 제한된 손상환입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③ (O)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 반면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에는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한 모형은 해당 유형자산의 종류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④ (O)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에 중요한 차이가 남지 않을 만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가치가 크게 변동하면 매년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지만, 변동이 경미하면 3년 또는 5년마다 수행해도 된다. 모든 자산에 일률적으로 3년이나 5년의 고정 주기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재평가손익과 손상차손의 표시 방법을 일률적으로 단정한 ①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14.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발활동으로 옳은 것은?

①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의 응용

② 개선된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 평가

③ 신규 판매 확정 제품에 대한 사내 개발부서 직원들의 브랜드 개발

④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의 설계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상업적 생산에 적합한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하는 것은 생산기술을 구체화하는 **개발활동**이다. 관련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연구단계의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의 지출은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개발비를 자산화하려면 완성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하여 사용·판매하려는 의도, 사용·판매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가능성, 완성 및 사용·판매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가능성, 개발 관련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을 모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① X: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의 응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자산화 가능한 개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응용방법을 탐색·평가·최종 선택하는 것은 연구활동이고,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 전에 새롭거나 현저히 개선된 제품 등의 **생산계획이나 설계에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개발활동이다. 따라서 응용 자체를 모두 연구활동으로 단정해서도 안 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② X: 개선된 제품에 관하여 **여러 대체안을 평가**하는 것은 연구활동이다.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대체안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선택된 대체안을 설계·제작·시험하는 단계이다. 연구단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X: 사내 직원이 개발한 브랜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브랜드 창출 지출을 사업 전체의 개발원가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품의 판매가 확정되었거나 담당 부서의 명칭이 개발부서라는 사실은 이 원칙을 바꾸지 않으며, 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O: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의 설계는 개발활동의 예이다. 여기서 경제적 규모가 아니라는 것은 **시험공장이 상업적 대량생산용 규모가 아니라는 뜻**이며, 개발 결과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개발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20×1년 초 사채권면상 액면금액 ₩100,000의 사채를 액면이자율 10%, 유효이자율 12%, 3년 만기,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으로 ₩95,200에 발행하였다. 20×1년 말 당해 사채 전체를 ₩97,000에 현금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에 따른 사채 상환손익은? (단, 20×1년 말 상환일 현재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은 ₩3,376이다)

① 상환손실 ₩376

② 상환이익 ₩376

③ 상환손실 ₩1,214

④ 상환이익 ₩1,214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상환일 사채 장부금액은 액면금액에서 미상각 할인발행차금을 뺀 ₩96,624이다. 실제 상환액 ₩97,000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차액 ₩376은 **상환손실**이다.

계산 과정

사채의 조기상환손익은 상환일의 사채 장부금액과 실제 상환대가를 비교하여 구한다. 상환대가가 장부금액보다 크면 상환손실, 작으면 상환이익이다. 액면금액이나 최초 발행금액을 상환대가와 바로 비교하지 않는다.

상환일 현재 액면금액은 ₩100,000이고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은 ₩3,376이다. 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상환일 장부금액은 100,000 − 3,376 = 96,624원이다.

주어진 잔액은 유효이자율법으로도 확인된다. 최초 할인발행차금은 100,000 − 95,200 = 4,800원이다. 첫해 이자비용은 발행금액에 유효이자율 12%를 적용한 95,200 × 0.12 = 11,424원이고, 현금 지급이자는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 10%를 적용한 100,000 × 0.10 = 10,000원이다. 두 금액의 차이 1,424원이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이므로 미상각 잔액은 4,800 − 1,424 = 3,376원이다. 3년 만기 사채를 첫해 말 상환하므로 남은 할인발행차금을 모두 상각하여 액면금액으로 맞추지 않는다.

상환대가 ₩97,000은 장부금액 ₩96,624보다 크다. 따라서 97,000 − 96,624 = 376원의 **사채상환손실**이 발생하며, ①과 일치한다. 당기 이자비용과 조기상환손익은 구분하며, 주어진 상환일의 미상각 잔액에 이미 반영된 첫해 상각액을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은 액면금액 ₩100,000, 액면이자율 10%, 만기가 20×4년 3월 31일(사채권면상 발행일은 20×1년 4월 1일로 기록됨)인 사채를 20×1년 10월 1일에 발행하였다. 사채권면상 발행일(20×1년 4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11%이며, 실제 발행시점(20×1년 10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12%이다. 이자는 매년 3월 31일에 지급되며, 사채발행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20×1년 10월 1일 시점의 사채발행금액은? (단, 사채권면상 발행일의 사채 현재가치는 ₩95,200이다)

① ₩92,818

② ₩93,056

③ ₩95,436

④ ₩95,912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제공 현재가치 95,200원에 실제 발행 시 시장이자율 12%로 계산한 6개월분 유효이자 5,712원을 더한다. 여기에서 **경과 표시이자 5,000원을 제외**하면 사채발행금액은 95,912원이다.

계산 과정

이자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발행하면 받은 현금에는 사채 자체의 발행금액과 경과 표시이자가 함께 들어 있다. 따라서 실제 발행 시점의 금리로 가액을 조정한 뒤, **경과이자를 분리한 순발행금액**을 구해야 한다.

1. 적용할 금리와 기간을 정한다. 사채의 발행가격에는 **실제 발행일인 20×1년 10월 1일의 시장이자율 12%**를 적용한다. 권면상 발행일인 4월 1일부터 실제 발행일까지는 6개월이다. 문제에서 제공한 권면일 기준 현재가치 95,200원을 출발금액으로 사용하며, 과거 시장이자율 11%를 적용하지 않는다.

2. 6개월분 유효이자 증가분을 계산한다. 이자지급일 사이의 기간을 월할하면 $95{,}200 \times 12\% \times \frac{6}{12} = 5{,}712$ 원이다. 따라서 경과이자를 포함한 실제 현금수령액은 95,200 + 5,712 = 100,912원이다.

3. 별도로 받는 경과 표시이자를 구한다. 다음 해 3월 31일에는 연간 표시이자 100,000 × 10% = 10,000원을 전액 지급하므로, 투자자로부터 발행 전 6개월분 표시이자를 미리 받는다. 이 금액은 $100{,}000 \times 10\% \times \frac{6}{12} = 5{,}000$원이며, 사채의 순발행금액과 구분한다.

4. 현금수령액에서 경과 표시이자를 제외한다. 사채발행금액은 **100,912 - 5,000 = 95,912원**이므로 ④와 일치한다. 사채발행비가 없으므로 추가로 차감할 금액은 없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립되어 냉장고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판매 후 냉장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2년간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수리비용은 대당 ₩200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판매수량의 30%에서 판매 이후 2년간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년 말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제품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할 금액은? (단, (주)한국은 제품판매에 따른 보증수리용역을 제품의 판매와 구분할 수 없는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냉장고 판매 및 보증비 지출은 모두 현금거래이다)

	판매수량	단위당 판매가격	실제 보증비지출액
20×1년	1,000개	₩500	₩10,000
20×2년	1,100개	600	12,000

① ₩66,000

② ₩54,000

③ ₩50,000

④ ₩48,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판매 제품의 총 예상 보증수리비 1,000 × 0.30 × 200 = 60,000원에서 **이미 지출한 10,000원**을 빼면, 기말에 남은 제품보증충당부채는 5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구할 금액은 20×1년 말에 남아 있는 제품보증 의무이다. 문제의 처리 전제에 따라, 판매한 제품의 하자에 대한 예상 수리비를 판매 시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실제 보증수리 지출은 그 충당부채에서 차감한다. 현금거래라는 조건은 비용을 현금이 나간 때에만 인식한다는 뜻이 아니다.

20×1년에 판매한 냉장고는 1,000개이고, 이 중 2년간 하자가 발생할 예상 비율은 30%이다. 따라서 예상 수리 대상은 $1{,}000 \times 0.30 = 300$개이다. 대당 수리비 200원을 적용한 총 예상 보증수리비는 $300 \times 200 = 60{,}000$원이다.

30%는 판매 이후 **2년 전체에 대한 하자 발생 비율**이다. 매년 30%라는 조건이 아니므로 예상 수리비 60,000원에 보증기간 2년을 다시 곱하거나, 이를 단순히 2년으로 나누지 않는다.

회사는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므로 기초 제품보증충당부채는 0원이다. 20×1년의 실제 보증비 지출액 10,000원은 이미 이행한 의무이므로 차감한다. 기말충당부채 = 기초충당부채 + 당기 예상 보증비용 − 실제 보증비 지출액이므로 $0 + 60{,}000 - 10{,}000 = 50{,}000$원이다.

단위당 판매가격 500원은 매출액 계산에 쓰는 값이며, 이 문제의 보증비 추정에는 대당 수리비 200원을 사용한다. 표의 20×2년 판매수량 1,100개, 판매가격 600원, 보증비 지출액 12,000원은 다음 연도 자료이므로 20×1년 말 잔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50,000원이며, 해당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18. '재무제표 표시'의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 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및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③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약정 위반으로 보고기간 말에 즉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채무는 **유동부채**이다. 보고기간이 끝난 뒤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보고기간 말의 분류를 비유동부채로 바꾸지는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서는 정상영업주기와 보고기간 말 현재의 결제 조건을 구분해야 한다. 정상영업주기에 속하는 영업부채는 그 주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금융부채는 만기뿐 아니라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결제 연기 권한도 살핀다. 보고기간 후 새로 성립한 약정과 보고기간 말에 이미 존재한 권한은 다르다.

① O: 매입채무나 종업원 급여 등 영업원가에 관한 미지급비용은 재고 취득·생산·판매·회수로 이어지는 정상영업주기의 운전자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되는 영업부채**라면 결제일이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을 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모든 부채에 12개월 기준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부채는 원래 장기로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유동부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보고기간 후 체결한 장기 차환·상환일 재조정 약정**은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권한이 아니므로, 그 사후 약정만으로 유동부채 분류를 바꾸지 않는다. 보고기간 말에 기존 계약상 연장 재량권이 이미 있는 ④의 경우와 구별된다.

③ X: 보고기간 말 이전의 약정 위반 때문에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결제를 장기간 미룰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이라도 보고기간이 끝난 뒤에 얻은 상환요구 면제 합의는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반면 보고기간 말까지 대여자가 적어도 그 후 12개월 이상 유지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는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면 비유동 분류가 가능하다.

④ O: 이 문항의 기준에서는 기존 대출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기업에 그 재량권도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핵심은 단순한 희망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에 이미 존재하는 계약상 재량권**이다. 새로운 대여자 동의가 필요하여 기업이 차환·연장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가능성만으로 비유동 분류를 할 수 없다.

NoteBase

문 19. '법인세'회계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

②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당해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③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세무기준액을 가지는 항목이 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미래 회계기간에 공제하도록 한 금액이 연구원가의 세무기준액이 되므로 이 금액과 영(0)인 장부금액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초래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다.

④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적절한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영구적차이를 결정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의 세무기준액은 제출되는 연결세무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비교로 정하는 것은 **일시적차이**이다. ④의 '영구적차이'는 이후 기간의 과세·공제 효과를 반영하는 이 비교의 대상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미래에 세무상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회수로 생기는 경제적효익 자체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을 장부금액과 같게 본다. 따라서 자산의 회수에 따른 미래 과세·공제 효과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다.

② O: 일반적인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그 부채와 관련해 미래에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뺀 값이다. 수익을 미리 받아 발생한 부채는 장부금액에서 미래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선수수익 100을 이미 세무상 과세했다면, 미래에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할 100은 다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무기준액은 0이 된다.

③ O: 연구원가를 발생한 기간에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상으로는 이후 기간에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계상 남아 있는 자산 장부금액은 0이어도 미래 공제액만큼 세무기준액이 존재한다. 그 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줄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원인이 된다. 다만 실제 자산 인식에는 그 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 등 인식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④ X: 연결재무제표의 장부금액과 적절한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은 **일시적차이**이다. '영구적차이'를 결정한다는 부분을 '일시적차이'로 고쳐야 한다. 연결세무신고서를 제출하는 국가에서는 이를 참조해 세무기준액을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집단 각 기업의 세무신고서를 참조한다. 영구적차이는 회계와 세무상 수익·비용의 차이가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 자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의 20×1년 초 현재 자본내역은 보통주자본금(액면 ₩1,000) ₩1,000,000, 주식발행초과금 ₩40,000, 감자차익 ₩10,000, 이익잉여금 ₩7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년에 발생한 거래가 다음과 같다면,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자본총액은? (단, 20×1년 초 자기주식과 자기주식처분손익 잔액은 ₩0이다)

3월 21일	자기주식 20주를 주당 ₩2,000에 취득하였다.
4월 15일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500에 취득하였다.
6월 25일	3월에 취득한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2,500에 처분하였다.
9월 10일	3월에 취득한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1,500에 처분하였다.
11월 20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모두를 소각하였다.
12월 31일	당기순이익 ₩200,000을 보고하였다.

① ₩1,935,000

② ₩1,945,000

③ ₩1,955,000

④ ₩1,965,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기주식 취득·처분으로 자본은 순액 5,000원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으로 200,000원 증가한다.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 내부의 대체**이므로 총액을 다시 줄이지 않아, 기말 자본은 1,94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말 자본총액은 기초 자본에 당기 자본 증감을 반영해 구한다. 기초에는 자기주식이나 자기주식처분손익이 없으므로 보통주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이익잉여금을 더한 aligned&1,000,000+40,000+10,000&+700,000=1,750,000aligned 원에서 출발한다.

3월 21일 자기주식 20주를 주당 2,000원에 취득하면서 $20 \times 2{,}000 = 40{,}000$원이 자본에서 차감된다. 4월 15일의 10주 취득도 $10 \times 500 = 5{,}000$원을 차감한다. 자기주식은 일반적인 투자자산으로 더하는 항목이 아니라 **자본 차감 항목**이다.

6월 25일에는 3월 취득분 10주를 주당 2,500원에 처분하므로 수취한 $10 \times 2{,}500 = 25{,}000$원만큼 자본총액이 증가한다. 9월 10일에는 나머지 3월 취득분 10주를 주당 1,500원에 처분하여 $10 \times 1{,}500 = 15{,}000$원이 증가한다. 취득원가와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 안에서 처리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수취대가에 중복해서 더하지 않는다.

11월 20일에 남아 있는 자기주식은 4월에 취득한 10주이며, 장부금액은 5,000원이다. 이를 소각하면 액면 총액 $10 \times 1{,}000 = 10{,}000$원의 자본금을 줄이고, 자기주식 차감액 5,000원을 제거하며, 차액 5,000원은 감자차익이 된다. 합계 효과는 $-10{,}000 + 5{,}000 + 5{,}000 = 0$원이므로 **소각 시 자본총액은 추가로 변하지 않는다**.

12월 31일의 당기순이익 200,000원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말 자본총액은 aligned&1,750,000-40,000-5,000+25,000&+15,000+200,000=1,945,000aligned 원이다.

계산된 자본총액 1,945,000원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거래가격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또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②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이다. 재화나 용역의 계약상 표시가격이나 정가는 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일 수 있지만, 개별 판매가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 할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이때,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들을 최대한 사용하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추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개별 판매가격 추정방법에는 시장평가 조정접근법,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잔여접근법 등이 포함된다.

④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상 각 수행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거래가격의 상대적 배분에 사용하는 개별 판매가격은 **계약 종료시점이 아니라 계약 개시시점**에 산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한 뒤 해당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한 계약에 여러 수행의무가 있으면 전체 대가를 각 수행의무에 배분해야 한다. 개별 판매가격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별도로 판매한다면 받을 가격이며, 원칙적으로 계약 개시시점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배분 기준으로 삼는다.

① O: 거래가격 배분의 목적은 각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한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해당 수행의무에 나타내는 것이다. 계약 전체의 대가를 수행의무별로 연결해야 **각 수행의무 이행에 따른 수익**을 적절히 인식할 수 있다. 단순히 계약서에 임의로 적힌 항목별 금액을 옮기는 작업은 아니다.

② O: 비슷한 거래 상황과 비슷한 고객에게 해당 재화나 용역을 따로 판매한 관측 가능한 가격은 개별 판매가격의 가장 좋은 증거이다. 계약상 표시가격이나 정가가 실제 개별 판매가격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할인 관행이나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가를 자동으로 개별 판매가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③ O: 직접 관측되는 판매가격이 없으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여 추정한다. 시장평가 조정접근법은 시장과 경쟁자 등의 가격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은 예상 이행원가에 적절한 이윤을 더한다. 잔여접근법은 전체 거래가격에서 다른 재화·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한다. 다만 **잔여접근법은 판매가격이 매우 가변적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등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다. 비슷한 상황에는 추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④ X: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 개시시점**이다. 그 시점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하므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 개시 후 개별 판매가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배분을 다시 하는 것도 아니다. 할인이나 변동대가를 특정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별도 요건은 이러한 일반적인 시점 원칙과 구분한다.

NoteBase

문 22. (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 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 이자지급 매년 말 1회인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또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만기일에 상환할증금 ₩8,000이 지급된다. 사채발행당시 전환옵션이 없는 유사사채에 대한 유효이자율은 12%이며, 사채발행일 이후 5개월 시점부터 만기일 전까지 사채액면금액 ₩10,000당 액면 ₩5,000의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인식될 전환권대가는? (단, 기간 3년 단일금액의 현재가치계수는 0.7, 기간 3년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2.4를 적용한다)

① ₩300

② ₩400

③ ₩500

④ ₩6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전환권대가는 총 발행대가에서 **전환권이 없는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를 뺀 잔액이다.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부채요소가 99,600원이므로 전환권대가는 400원이다.

계산 과정

이 전환사채는 원리금을 지급할 부채요소와 정해진 수의 보통주로 전환할 자본요소를 함께 갖는다. 발행 시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총 발행대가에서 이를 뺀 잔액을 전환권대가로 인식한다.

1. 부채요소에 포함할 현금흐름을 구한다. 매년 말 지급하는 표시이자는 100,000 × 10% = 10,000원이다. 전환하지 않으면 만기에 액면금액 100,000원과 상환할증금 8,000원을 합한 **108,000원**을 지급하므로, 상환할증금도 부채요소의 측정에 포함한다.

2. 전환권 없는 유사사채의 유효이자율 12%에 대응하는 제시 현가계수를 적용한다. 만기 상환액의 현재가치는 108,000 × 0.7 = 75,600원이고, 매년 말 이자 10,000원을 3년간 지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10,000 × 2.4 = 24,000원이다. 따라서 부채요소는 **75,600 + 24,000 = 99,600원**이다. 표시이자율 10%는 현금이자 계산에 사용하며 할인율과 구별한다.

3. 발행대가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다. 액면발행이므로 총 발행대가는 100,000원이고, 전환권대가는 **100,000 - 99,600 = 400원**이므로 ②와 일치한다. 사채액면 10,000원당 보통주 1주라는 전환조건은 정해진 주식 수로의 전환을 나타내며, 주당 액면 5,000원을 전환권대가로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발행 5개월 후라는 조건도 최초 분리 인식을 그때까지 미루는 사유가 아니다.

NoteBase

문 23. ㈜한국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00,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2,000,000이다. 20×1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는 ₩100,000이며, 20×1년 말에 사외적립자산에서 퇴직급여 ₩100,000이 지급되었고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50,000이 납부되었다. 20×1년 말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2,500,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950,000이라면, 20×1년 말 당기손익에 반영될 퇴직급여원가는? (단,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은 10%이며 매년 동일하다)

① ₩0

② ₩100,000

③ ₩200,000

④ ₩3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당기손익에는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을 반영한다. 기초 채무와 적립자산의 차이 ₩1,000,000에 10%를 적용한 순이자비용 ₩100,000을 근무원가 ₩100,000에 더하므로 퇴직급여원가는 ₩200,00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확정급여제도의 퇴직급여원가는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재측정요소를 구분한다. 이 문제에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의 합계이며, 보험수리적손익과 순이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외적립자산 수익 등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2,000,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므로, 기초 순확정급여부채는 2,000,000 − 1,000,000 = 1,000,000원이다.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 10%를 적용한 순이자비용은 1,000,000 × 0.10 = 100,000원이다. 이는 채무 이자비용 200,000원에서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1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퇴직급여 ₩100,000의 지급과 기여금 ₩50,000의 납부는 모두 연말에 이루어졌으므로 당해 연도의 순이자에 대한 기간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사외적립자산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채무와 적립자산이 함께 감소하며, 기여금 납부는 적립자산을 증가시킨다. 이 현금 흐름을 당기근무원가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기말 수치에는 재측정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채무는 기초 2,000,000원에 근무원가 100,000원과 이자비용 200,000원을 더하고 지급액 100,000원을 빼면 2,200,000원인데, 실제 기말 현재가치는 2,500,000원이므로 보험수리적손실은 300,000원이다. 적립자산은 기초 1,000,000원에 이자수익 100,000원과 기여금 50,000원을 더하고 지급액 100,000원을 빼면 1,050,000원인데, 실제 공정가치는 950,000원이므로 순이자에 포함되지 않은 재측정손실은 100,000원이다. 이 두 손실의 합계 40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당기손익에 반영할 퇴직급여원가는 당기근무원가 100,000원에 순이자비용 100,000원을 더한 200,000원이다. 계산 결과는 ③의 ₩200,000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4. 12월 말 결산법인 (주)한국은 20×1년 말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장부마감 전에 수정 완료하였다.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000이라면,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6월 30일까지의 1년분 보험료 ₩12,000을 20×1년 7월 1일에 현금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6월 30일까지의 1년분 이자비용 ₩24,000을 20×2년 6월 30일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할 계획으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6월 30일까지의 1년분 임대료 ₩36,000을 20×1년 7월 1일에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6월 30일까지의 1년분 수수료수익 ₩48,000을 20×2년 6월 30일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할 계획으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 (주)한국은 (주)대한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년 초에 개당 원가 ₩15,000의 상품 10개를 적송하면서 적송운임 ₩10,000을 지급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20×1년 중 (주)대한은 수탁상품 5개를 개당 ₩20,000에 판매(판매수수료 개당 ₩2,000)하여 (주)한국에 통보하였지만 (주)한국은 이를 누락하였다.

① ₩102,000

② ₩108,000

③ ₩110,000

④ ₩12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보험료·이자·임대료·수수료의 기간귀속 수정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쇄된다. 누락한 위탁판매에서 적송운임을 포함한 매출원가와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이익 10,000원**을 추가하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1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장부마감 전 발견한 당기 오류이므로 수정 전 당기순이익 100,000원에 각 오류의 수정 영향을 더한다. 네 가지 기간귀속 항목은 모두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6월 30일까지 12개월에 관한 금액이며, 당기에 속하는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1. 보험료: 12,000원을 이미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다음 해 6개월분은 선급비용이다. $12{,}000 \times \frac{6}{12} = 6{,}000$원을 선급보험료로 돌리고 비용을 줄여야 하므로 **당기순이익이 6,000원 증가**한다.

2. 이자비용: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당기 6개월분 이자는 발생한 비용이다. $24{,}000 \times \frac{6}{12} = 12{,}000$원의 이자비용과 미지급이자를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12,000원 감소한다.

3. 임대료: 36,000원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으나 다음 해 6개월분은 아직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대가이다. $36{,}000 \times \frac{6}{12} = 18{,}000$원을 선수수익으로 처리하여 임대료수익에서 차감하므로 당기순이익이 18,000원 감소한다.

4. 수수료수익: 현금 수령을 기다리지 않고 당기에 귀속되는 6개월분 수익을 인식한다. $48{,}000 \times \frac{6}{12} = 24{,}000$원의 미수수익과 수수료수익을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24,000원 증가한다. 여기까지의 순효과는 6,000 − 12,000 − 18,000 + 24,000 = 0원이다.

5. 위탁판매: 위탁자 한국은 상품을 대한에 보낸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외부 고객에게 판매한 부분의 매출과 원가를 인식한다. 당기 판매액은 5 × 20,000 = 100,000원이다. 적송운임 10,000원은 10개 상품의 원가에 포함되므로 개당 원가는 $15{,}000 + \frac{10{,}000}{10} = 16{,}000$원이고, 판매한 5개의 매출원가는 5 × 16,000 = 80,000원이다. 판매수수료는 5 × 2,000 = 10,000원이므로 누락한 이익은 100,000 − 80,000 − 10,000 = 10,000원이다. **팔리지 않은 5개에 배분된 적송운임은 재고원가로 남으며**, 운임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00,000 + 0 + 10,000 = 110,000원이며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5. 회계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와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명확한 측정기준 변경이 정책변경이라는 원칙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회계정책은 기간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준서가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으로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면서 목적적합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당기이익을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O) 거래의 실질이 달라 그에 맞는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거래의 기존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다. 과거에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정책을 새로 적용하는 경우도 기존 정책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새로운 거래에 적합한 정책을 정하는 것과 종전 거래의 처리 원칙을 바꾸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③ (O) 새로운 정보나 경험, 추정의 기초가 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종전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용 경험을 반영해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이용 가능했던 정보를 잘못 사용한 오류수정과 다르며, 변경 효과는 영향을 받는 당기와 미래기간에 반영한다.

④ (X)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라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정책변경인지 추정변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는 뒷부분이 잘못이다.

따라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 원칙을 반대로 제시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26. (주)한국은 20×1년 초 총계약금액이 ₩300,000인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3년이며, 20×1년 초 총계약원가는 ₩200,000으로 추정되었으나 원부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20×2년부터 ₩220,000으로 증가하였고 실제로 그 원가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아파트공사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2년과 20×3년의 계약손익은? (단,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20×1년	20×2년	20×3년
누적발생계약원가	₩60,000	₩110,000	₩220,000
추정총계약원가	200,000	220,000	220,000
계약대금 청구액	100,000	100,000	100,000
계약대금 회수액	60,000	100,000	140,000

① 20×2년: 계약손실 ₩40,000, 20×3년: 계약이익 ₩10,000

② 20×2년: 계약이익 ₩10,000, 20×3년: 계약이익 ₩40,000

③ 20×2년: 계약이익 ₩40,000, 20×3년: 계약손실 ₩10,000

④ 20×2년: 계약손실 ₩10,000, 20×3년: 계약손실 ₩4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진행률로 계산한 **누적수익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을 차감**해야 당기수익이 된다. 20×2년과 20×3년의 당기수익에서 각각 당기원가를 빼면 계약이익은 10,000원과 4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문제의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해당 시점의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추정 변경은 20×2년 계산부터 반영하며, 20×1년의 인식금액을 소급하여 바꾸지 않는다. 표의 계약대금 청구액과 회수액은 청구·현금 유입 자료이며, 여기서 정한 진행률이나 수익 인식액을 결정하지 않는다.

1. 20×1년에 이미 인식한 수익을 구한다. 당시 추정총원가는 200,000원이고 누적발생원가는 60,000원이므로 진행률은 $\frac{60,000}{200,000}$ = 30%이다. 따라서 누적수익은 300,000 × 30% = 90,000원이고, 계약이익은 90,000 - 60,000 = 30,000원이다.

2. 20×2년 계약손익을 계산한다. 추정총원가가 220,000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진행률은 $\frac{110,000}{220,000}$ = 50%이고, 누적수익은 300,000 × 50% = 150,000원이다. 여기에서 전기에 인식한 수익 90,000원을 빼면 **당기수익은 60,000원**이다. 표의 원가는 누적액이므로 당기원가는 110,000 - 60,000 = 5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계약이익은 **60,000 - 50,000 = 10,000원**이다.

3. 20×3년 계약손익을 계산한다. 공사가 실제 총원가 220,000원에 완료되므로 진행률은 100%이고 총 누적수익은 300,000원이다. 당기수익은 300,000 - 150,000 = 150,000원, 당기원가는 220,000 - 110,000 = 11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계약이익은 **150,000 - 110,000 = 40,000원**이다.

4. 20×2년 계약이익 10,000원과 20×3년 계약이익 40,000원은 ②와 일치한다. 세 연도 이익의 합계도 30,000 + 10,000 + 40,000 = 80,000원으로, 총계약금액 300,000원에서 실제 총원가 220,000원을 뺀 전체 계약이익과 같다.

NoteBase

문 27. (주)한국은 20×1년 중에 취득원가 ₩300,000의 설비자산을 구입하였고, 취득원가 ₩280,000(장부금액 ₩250,000)의 설비자산을 ₩260,000에 처분하였다. (주)한국의 모든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는 현금거래이고, 설비자산 및 감가상각누계액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설비자산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당기 현금흐름표에 표시될 투자활동 순현금흐름은? (단, (주)한국은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손상차손은 없다)

	20×1년 초	20×1년 말
설비자산	₩600,000	₩620,000
감가상각누계액	(120,000)	(110,000)

① 현금유입 ₩10,000

② 현금유출 ₩10,000

③ 현금유입 ₩40,000

④ 현금유출 ₩4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처분대금과 취득대금**으로 계산한다. 받은 현금 ₩260,000보다 지급한 현금 ₩300,000이 크므로 순현금유출은 ₩40,000이며, 처분이익이나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설비자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실제로 지급하거나 수령한 현금**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취득·처분이 현금거래이므로, 취득대금 ₩300,000은 투자활동 현금유출이고 처분대금 ₩260,000은 투자활동 현금유입이다.

처분한 설비의 장부금액은 ₩250,000이므로 처분이익은 260,000 − 250,000 = 10,000원이다. 그러나 이익 10,000원이 처분으로 받은 전체 현금은 아니다. 투자활동에는 처분대금 260,000원을 반영하며, 처분이익을 여기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표의 설비자산은 취득원가 기준 금액이다. 기초 600,000원에 당기 취득원가 300,000원을 더하고 처분자산의 취득원가 280,000원을 빼면 기말 620,000원이 되어 표와 일치한다.

처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원가 280,000원과 장부금액 250,000원의 차이인 30,000원이다. 기초 누계액 120,000원에서 처분분 30,000원을 제거한 뒤 기말 누계액 110,000원이 되려면 당기 감가상각비는 20,000원이다. 원가모형이고 손상차손이 없다는 조건과도 일치한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투자활동 현금유출에 추가하지 않는다.

투자활동 순현금흐름은 현금유입 260,000원에서 현금유출 300,000원을 뺀 −40,000원이다. 따라서 순현금유출 ₩40,000이며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8. ㈜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원가 및 비용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재료원가는?

기본(기초)원가	₩45,000	전환(가공)원가	₩30,000
간접재료원가	5,000	영업사원급여	3,000
본사임차료	4,000	공장감가상각비	6,000
공장소모품비	2,000	간접노무원가	4,000

① ₩25,000

② ₩28,000

③ ₩32,000

④ ₩36,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전환원가에서 제조간접원가를 빼면 직접노무원가를 구할 수 있다. 이를 기본원가에서 차감하면 **직접재료원가 32,000원**이 산출되며, 영업사원 급여와 본사 임차료는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이고,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다. 두 금액에 공통으로 포함된 직접노무원가를 먼저 구하면 기본원가에서 직접재료원가를 분리할 수 있다.

1.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한다. 자료 중 간접재료원가 5,000원, 공장감가상각비 6,000원, 공장소모품비 2,000원, 간접노무원가 4,000원은 제품 제조와 관련된 간접원가이다. 합계는 5,000 + 6,000 + 2,000 + 4,000 = 17,000원이다. **영업사원 급여 3,000원과 본사 임차료 4,000원은 판매·관리 활동의 기간비용**이므로 제조간접원가에서 제외한다.

2. 직접노무원가를 구한다. 전환원가 30,000원에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노무원가는 30,000 − 17,000 = 13,000원이다. 간접노무원가 4,000원은 이미 제조간접원가에 포함했으므로 여기서 직접노무원가로 다시 더하지 않는다.

3. 직접재료원가를 구한다. 기본원가 45,000원에서 직접노무원가 13,000원을 차감하면 45,000 − 13,000 = 32,000원이다. **기본원가와 전환원가를 그대로 합하면 직접노무원가가 중복**되므로 두 묶음의 구성 차이를 이용해야 한다. 직접재료원가 32,000원은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9. (주)한국은 20×1년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의 제조간접원가 계정과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및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제조간접원가	
100,000	120,000

구 분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금 액	₩200,000	₩300,000	₩500,000

① ₩480,000

② ₩490,000

③ ₩510,000

④ ₩52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제조간접원가가 20,000원 **과대배부**되었고, 매출원가가 배분 기준 총원가의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10,000원을 차감한 490,000원이 조정 후 매출원가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의 실제 발생액을 계정 차변에, 제품 등에 예정 배부한 금액을 대변에 기록한다. 그림의 왼쪽 차변은 100,000원이고 오른쪽 대변은 120,000원이므로, 실제보다 $120{,}000 - 100{,}000 = 20{,}000$원을 더 배부한 **과대배부** 상태이다.

총원가비례배분법은 배부차이를 기말재공품·기말제품·매출원가의 조정 전 총원가 잔액에 비례하여 나누는 방법이다. 배분 기준 총액은 $200{,}000 + 300{,}000 + 500{,}000 = 1{,}000{,}000$원이다. 각 계정에 포함된 제조간접원가만의 비율을 사용하는 방법과 구별해야 한다.

매출원가의 배분 비율은 $\frac{500{,}000}{1{,}000{,}000} = 0.5$이다. 따라서 매출원가에 배분할 과대배부액은 $20{,}000 \times 0.5 = 10{,}000$원이다. 나머지는 기말재공품에 4,000원, 기말제품에 6,000원이 배분되어 합계 20,000원과 일치한다.

과대배부는 원가를 실제보다 많이 계상한 것이므로 각 계정에서 차감한다. 조정 후 매출원가는 $500{,}000 - 10{,}000 = 490{,}000$원이다. 전체 배부차이 20,000원을 모두 매출원가에서 빼면 문제에서 정한 총원가비례배분법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490,000원이며, 해당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30. (주)한국은 제조부문인 조립부문과 도장부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으로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을 두고 있다. (주)한국은 단계배분법을 적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있다. 각 부문의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도장부문에 배부될 보조부문원가는? (단, 보조부문원가는 수선부문부터 배부한다.)

구 분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 계
	수선부문	동력부문	조립부문	도장부문	
부문원가	₩30,000	₩25,000	₩70,000	₩85,000	₩210,000
수선부문	-	50%	30%	20%	100%
동력부문	20%	-	30%	50%	100%

① ₩21,000

② ₩24,000

③ ₩26,000

④ ₩31,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단계배분법은 **배부를 마친 수선부문에 다시 원가를 배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력부문 원가 40,000원을 조립·도장 비율 30 대 50으로 나누면 도장은 25,000원을 받고, 수선부문에서 받은 6,000원을 합쳐 31,000원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단계배분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하고, 배부가 끝난 부문을 이후 배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문항은 **수선부문 → 동력부문** 순서이므로 수선에서 동력으로 제공한 용역은 반영하지만, 동력에서 수선으로 돌아가는 배부는 하지 않는다.

1. 수선부문 원가 30,000원을 먼저 배부한다. 표에서 수선부문이 제공한 용역은 동력 50%, 조립 30%, 도장 20%이므로, 동력부문에는 30,000 × 50% = 15,000원, 조립부문에는 9,000원, **도장부문에는 6,000원**을 배부한다.

2. 동력부문에서 배부할 원가를 합산한다. 자체 원가 25,000원에 수선부문에서 배부받은 15,000원을 더하므로 배부대상 원가는 **40,000원**이다. 수선부문에서 넘어온 원가를 제외하고 자체 원가만 배부하면 안 된다.

3. 동력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수선부문은 이미 배부를 마쳤으므로 수선부문에 제공한 20%는 배부대상에서 제외한다. 남은 조립 30%와 도장 50%의 합계 80%를 분모로 삼아, 도장부문에 $40{,}000 \times \frac{50}{30+50} = 25{,}000$원을 배부한다.

4. 도장부문이 받은 두 보조부문 원가를 합산하면 **6,000 + 25,000 = 31,000원**이므로 ④와 일치한다. 문제는 도장부문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만 묻기 때문에, 도장부문 자체 원가 85,000원은 이 답에 더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1.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20×1년 생산 및 원가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가. 생산수량 내역

구 분	수 량	전환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	400단위	30%
당기 착수	1,000단위	-
당기완성품	1,100단위	-
기말재공품	300단위	40%

나. 제조원가 내역

구 분	직접재료원가	전환원가
기초재공품원가	₩8,500	₩4,000
당기발생원가	20,000	44,000

① ₩53,200
② ₩54,500
③ ₩65,700
④ ₩76,500

정답 3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와 당기 추가 작업**을 구분한다. 당기 환산량 단위원가는 재료 20원·전환 40원이며, 기초재공품 완성분 23,700원과 당기 착수·완성분 42,000원을 합한 완성품 원가는 ₩65,700이다.

계산 과정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에 이미 투입된 전기 원가와 당기에 추가한 원가를 구분한다. 완성품은 기초재공품 400단위를 먼저 완성한 물량과 당기 착수·완성 물량으로 나눈다. 공손·감손이 없으므로 기초 400 + 당기 착수 1,000 = 완성 1,100 + 기말 300 = 1,400단위이며, 당기 착수·완성 수량은 1,100 − 400 = 700단위이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 400단위에는 전기에 재료가 이미 모두 투입되었다. 당기에는 그 물량에 재료를 추가하지 않으며, 당기 착수·완성 700단위와 기말재공품 300단위에 재료를 전량 투입한다. 따라서 직접재료의 당기 완성품환산량은 700 + 300 = 1,000단위이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초재공품의 완성도가 30%이므로 당기에 나머지 70%를 가공해야 하며, 그 환산량은 400 × 0.7 = 280단위이다. 여기에 당기 착수·완성 700단위와 기말재공품의 환산량 300 × 0.4 = 120단위를 더하면, 전환원가의 당기 완성품환산량은 280 + 700 + 120 = 1,100단위이다.

선입선출법의 완성품환산량 단위원가는 **당기발생원가만**을 해당 당기 환산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직접재료 단위원가는 $\frac{20,000}{1,000}$ = 20원이고, 전환원가 단위원가는 $\frac{44,000}{1,100}$ = 40원이다. 기초재공품원가를 이 분자에 합치지 않는다.

기초재공품 400단위를 완성한 원가는 이미 포함된 직접재료원가 8,500원과 전환원가 4,000원에, 당기 추가 전환원가 280 × 40 = 11,200원을 더한 금액이다. 따라서 8,500 + 4,000 + 11,200 = 23,700원이다.

당기 착수·완성 700단위에는 당기의 직접재료와 전환원가가 모두 발생하므로 원가는 700 × (20 + 40) = 42,000원이다. 전체 완성품 원가는 23,700 + 42,000 = 65,700원이다.

기말재공품 원가는 직접재료 300 × 20 = 6,000원과 전환원가 120 × 40 = 4,800원을 합한 10,800원이다. 완성품 65,700원과 합하면 76,500원으로, 기초재공품원가 12,500원과 당기발생원가 64,000원의 합계와 일치한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는 ₩65,700이며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2. (주)한국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 B를 생산하고 있으며,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결합원가는 ₩200,000이다. 제품 A와 B는 분리점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추가가공한 후에 판매된다. 결합제품의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및 추가가공 후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균등이익률법에 따라 결합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할 때, 제품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단,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제품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A	200단위	₩30,000	₩1,000
B	150단위	70,000	2,000

① ₩90,000

② ₩100,000

③ ₩110,000

④ ₩12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균등이익률법은 제품별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드는 배부방법이다. 전체 이익률 40%를 적용한 B의 총원가 180,000원에서 추가가공원가 70,000원을 빼면 배부할 결합원가는 11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균등이익률법은 각 제품의 최종 판매가액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같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먼저 모든 제품의 최종 판매가액과 결합원가·추가가공원가를 합산하여 공통 이익률을 구한 뒤, 제품별 총원가에서 각 제품의 추가가공원가를 빼면 배부할 결합원가가 나온다.

1. 최종 판매가액을 구한다. A는 200단위 × 1,000원 = 200,000원, B는 150단위 × 2,000원 = 300,000원이다. 두 제품의 총판매가액은 500,000원이다. 분리점에 시장이 없으므로 주어진 **추가가공 후 판매가격**을 사용한다.

2. 전체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한다. 총원가는 결합원가 200,000원에 A의 추가가공원가 30,000원과 B의 추가가공원가 70,000원을 더한 300,000원이다. 매출총이익은 500,000 − 300,000 = 200,000원이고, 공통 이익률은 $\frac{200{,}000}{500{,}000} \times 100 = 40\%$이다. 원가 대비 이익률이 아니라 **판매가액 대비 이익률**이다.

3. B에 귀속될 총원가를 구한다. B도 매출총이익률이 40%가 되어야 하므로 원가율은 60%이다. B의 총원가는 $300{,}000 \times \frac{60}{100} = 180{,}000$원이다. 이 금액에는 결합원가 배부액뿐 아니라 B의 추가가공원가도 들어 있다.

4. B의 결합원가 배부액을 구한다. 총원가 180,000원에서 이미 B에 직접 귀속되는 추가가공원가 70,000원을 차감하면 110,000원이다. 검산하면 A의 총원가는 $200{,}000 \times \frac{60}{100} = 120{,}000$원이고 결합원가 배부액은 120,000 − 30,000 = 90,000원이므로, A와 B의 배부액 합계는 200,000원으로 전체 결합원가와 일치한다. B에 배부되는 110,000원은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3.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표준 및 실제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의 실제 제품생산량은?

제품단위당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5kg
직접재료원가 실제 발생액 ₩81,000
직접재료 단위당 실제구입원가 ₩90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 ₩9,000(유리)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 ₩10,000(유리)

① 220단위
② 200단위
③ 180단위
④ 160단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유리한 가격차이로부터 표준단가가 100원/kg임을 구하고, 유리한 능률차이를 반영하면 허용 표준투입량은 1,000kg이다. 이를 **제품 1단위당 표준투입량 5kg**으로 나누면 실제 생산량은 200단위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실제 제품생산량을 구하려면 실제 재료투입량과, 그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 재료투입량을 구별해야 한다. 실제 재료투입량을 AQ, 실제 단가를 AP, 표준 단가를 SP,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투입량을 SQ라고 하자. 재료 수량의 단위는 kg이다.

실제 직접재료원가 81,000원을 실제 단가 90원/kg으로 나누면 실제 재료투입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AQ = \frac{81{,}000}{90} = 900$kg이다.

가격차이 9,000원이 유리하다는 것은 실제 단가가 표준 단가보다 낮았다는 뜻이다. 유리한 가격차이의 크기는 $(SP - AP) \times AQ$이므로 $(SP - 90) \times 900 = 9{,}000$이다. 따라서 $SP = 90 + \frac{9{,}000}{900} = 100$원/kg이다.

능률차이 10,000원이 유리하다는 것은 실제 투입량 900kg이 허용 표준투입량보다 적었다는 뜻이다. 유리한 능률차이의 크기는 $(SQ - AQ) \times SP$이므로 $(SQ - 900) \times 100 = 10{,}000$이다. 이에 따라 $SQ = 900 + \frac{10{,}000}{100} = 1{,}000$kg이다.

제품 1단위를 만드는 데 허용되는 표준 재료투입량은 5kg이다. 따라서 실제 생산량은 **허용 표준투입량을 단위당 표준투입량으로 나눈 값**인 $\frac{1{,}000}{5} = 200$단위이다. 실제 사용량 900kg을 5kg으로 나누면 재료 사용의 능률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제품생산량은 200단위이며, 해당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34. (주)한국은 20×1년에 영업을 시작하여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이다. 20×1년에 제품 1,000단위를 생산하여 800단위를 판매하였다. 제품과 관련된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의 차이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20
총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
총고정판매관리비 ₩15,000

① ₩8,000

② ₩9,000

③ ₩10,000

④ ₩11,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두 방법의 재고 차이는 **기말재고에 남아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기말재고 200단위에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40원이 포함되므로 전부원가계산의 재고자산이 ₩8,000 더 크다.

NoteBase

계산 과정

전부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모두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변동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두 방법의 기말재고자산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20×1년에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기초제품 재고는 없다. 1,000단위를 생산하여 800단위를 판매했으므로 기말재고 수량은 1,000 − 800 = 200단위이다.

총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을 생산량 1,000단위에 배부하면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frac{40,000}{1,000} = 40$원이다. 이 배부의 기준은 판매량 800단위가 아니라 **생산량 1,000단위**이다.

전부원가계산의 단위당 제품원가는 변동제조원가 100원과 고정제조간접원가 40원을 더한 140원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200 × 140 = 28,000원이다. 변동원가계산의 단위당 제품원가는 100원이므로 기말재고자산은 200 × 100 = 20,000원이다.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20원과 총고정판매관리비 15,000원은 두 방법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제품재고원가에 넣지 않는다. 단위당 판매가격 200원 역시 이 문제의 재고원가 차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아니다.

두 방법의 기말재고자산 차이는 28,000 − 20,000 = 8,000원이다. 이는 기말재고 200단위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 200 × 40 = 8,000원과 같다. 전부원가계산의 재고자산이 8,000원 더 크며, 차액은 ①의 ₩8,000이다.

NoteBase

문 35.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과 20×2년의 생산량과 총제조원가에 대한 자료로서,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는 일정하였다. 2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고정원가는 20%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0% 감소한다면, 생산량이 3,000단위일 때 총제조원가는?

구 분	생산량(단위)	총제조원가
20×1년	1,500	₩200,000
20×2년	2,000	250,000

① ₩318,000

② ₩330,000

③ ₩378,000

④ ₩39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두 해의 원가·생산량 차이로 구한 기존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원, 총고정원가는 50,000원이다. 변경 후에는 **단위당 변동원가 90원과 총고정원가 60,000원**을 적용하므로 3,000단위의 총제조원가는 33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총제조원가는 총고정원가와 총변동원가의 합이다. 생산량을 Q, 단위당 변동원가를 v, 총고정원가를 F라 하면 $TC = F + vQ$로 나타낸다. 두 해에 v와 F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이용해 두 요소를 분리한다.

1. 기존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한다. 20×1년과 20×2년의 총고정원가가 같으므로 총원가의 차이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변동원가의 차이이다. 따라서 $v = \frac{250{,}000 - 200{,}000}{2{,}000 - 1{,}500} = 100$원/단위이다.

2. 기존 총고정원가를 구한다. 20×1년 자료에 대입하면 $F = 200{,}000 - 100 \times 1{,}500 = 50{,}000$원이다. 20×2년에도 250,000 - 100 × 2,000 = 50,000원으로 일치한다.

3. 20×3년의 변경 조건을 각각 적용한다. 총고정원가는 50,000 × 1.2 = **60,000원**으로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 × 0.9 = **90원/단위**로 감소한다. 20% 증가는 총고정원가에, 10% 감소는 단위당 변동원가에 적용한다.

4. 생산량 3,000단위에서 총변동원가는 90 × 3,000 = 270,000원이다. 여기에 총고정원가를 더하면 총제조원가는 **60,000 + 270,000 = 330,000원**이므로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36. (주)한국의 20 × 1년 매출액은 ₩500,000, 총고정원가는 ₩160,000, 공헌이익률은 40%이며, 법인세율은 30%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동일하다)

① 안전한계율은 25%이다.

② 영업레버리지도는 5이다.

③ 세후 영업이익은 ₩28,000이다.

④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400,000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안전한계율은 안전한계액을 **현재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안전한계액 100,000원을 매출액 500,000원으로 나누면 20%이므로, 25%라는 설명은 잘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주어진 공헌이익률 40%를 적용하면 공헌이익은 $500{,}000 \times 0.4 = 200{,}000$원이고, 세전 영업이익은 여기에서 고정원가를 뺀 $200{,}000 - 160{,}000 = 40{,}000$원이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같으므로 별도의 재고 증감 조정을 하지 않는다.

① (X) 안전한계액은 현재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나타낸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frac{160{,}000}{0.4} = 400{,}000$원이므로 안전한계액은 $500{,}000 - 400{,}000 = 100{,}000$원이다. 안전한계율은 이를 **현재 매출액**으로 나눈 $\frac{100{,}000}{500{,}000} \times 100 = 20\%$이다. 25%는 분모를 손익분기점 매출액 400,000원으로 잘못 삼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② (O) 영업레버리지도는 해당 매출 수준에서 공헌이익을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frac{200{,}000}{40{,}000} = 5$이다. 공헌이익률과 고정원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분석 범위에서는 매출의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③ (O) 주어진 법인세율 30%를 세전 영업이익에 적용하면 세후 영업이익은 $40{,}000 \times (1 - 0.3) = 28{,}000$원이다. 공헌이익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원가를 차감한 이익에 적용한다.

④ (O) 손익분기점에서는 공헌이익이 고정원가를 정확히 충당하여 영업이익이 0이 된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공헌이익률 40%를 곱한 값이 고정원가 160,000원과 같아야 하므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frac{160{,}000}{0.4} = 400{,}000$원이다.

따라서 안전한계율을 25%로 제시한 ①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37. (주)한국은 단일제품 500단위를 생산 · 판매하고 있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이며, 단위당 변동원가는 ₩120이다. (주)한국은 (주)대한으로부터 단위당 ₩180에 2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별도의 포장작업으로 인해 추가로 단위당 변동원가 ₩10이 발생한다. (주)한국의 최대생산능력은 600단위로 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기존 시장의 판매량 1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주)한국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증분손익은?

① 증분손실 ₩10,000

② 증분손실 ₩8,000

③ 증분이익 ₩2,000

④ 증분이익 ₩1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특별주문의 공헌이익 ₩10,000에서 기존 판매 100단위를 포기하는 **기회비용인 상실 공헌이익 ₩8,000**을 차감해야 한다. 추가 포장비까지 반영한 증분이익은 ₩2,000이다.

계산 과정

특별주문의 증분손익은 특별주문으로 추가되는 공헌이익에서 기존 판매를 포기하여 잃는 공헌이익을 차감하여 구한다.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이며, 수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만 비교한다.

현재 생산·판매량은 500단위이고 최대생산능력은 600단위이므로 유휴생산능력은 100단위이다. 특별주문 200단위를 모두 생산하려면 기존 판매 1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수락 후에는 기존 시장에 400단위, 특별주문에 200단위를 판매하여 총생산량이 600단위가 된다.

특별주문에는 기존 변동원가 120원 외에 포장비 10원이 단위당 추가되므로 단위당 변동원가는 130원이다. 특별주문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180 − 130 = 50원이며, 200단위의 총공헌이익은 200 × 50 = 10,000원이다. 추가 포장비는 특별주문 200단위 모두에 적용한다.

기존 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200 − 120 = 80원이다. 기존 판매 100단위를 포기하므로 **상실 공헌이익 100 × 80 = 8,000원**이 기회비용이 된다. 상실 매출액 20,000원 전체가 기회비용은 아니다. 해당 100단위를 생산하지 않아 변동원가 12,000원도 절약되기 때문이다.

특별주문 수락의 증분손익은 10,000 − 8,000 = 2,000원이다. 특별주문에서 얻는 공헌이익이 상실 공헌이익보다 크므로 증분이익 ₩2,000이며,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8. (주)한국은 20x1년 분기별 생산량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주)한국은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원재료 5kg을 투입하고 있으며, kg당 구입단가는 ₩10이다. 원재료 재고정책은 각 분기별로 다음 분기 생산량의 생산에 투입될 소요량의 10%를 안전재고로 보유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3분기의 원재료 구입예산액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50단위	300단위	320단위	280단위

① ₩15,600
② ₩15,700
③ ₩15,800
④ ₩15,9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3분기 원재료 구매량은 생산투입량에 기말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뺀 **1,600 + 140 - 160 = 1,580kg**이다.
kg당 10원을 적용하면 구입예산액은 15,8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원재료는 기초재고와 당기구입량을 합한 수량에서 생산에 투입하고, 남은 수량을 기말재고로 보유한다. 따라서 구입량은 '생산투입량 + 목표 기말재고 - 기초재고'로 구하며, 제품 생산량을 먼저 원재료 kg으로 환산해야 한다.

1. 3분기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를 계산한다. 표의 3분기 생산량은 320단위이고 제품 1단위당 원재료가 5kg 필요하므로, 생산투입량은 **320 × 5 = 1,600kg**이다.

2. 3분기 말 목표재고를 구한다. 재고정책은 다음 분기 소요량의 10%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4분기 생산량 28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4분기 원재료 소요량은 280 × 5 = 1,400kg이며, 목표 기말재고는 1,400 × 10% = 140kg이다.

3. 3분기 초 재고를 구한다. 3분기 초 재고는 2분기 말에 보유한 재고이고, 당시의 '다음 분기'는 3분기이다. 따라서 2분기 생산량 300단위가 아니라 **3분기 소요량 1,600kg**의 10%를 적용하여, 기초재고는 1,600 × 10% = 160kg이다.

4. 구매량과 구입예산액을 계산한다. 구매량은 1,600 + 140 - 160 = 1,580kg이다. kg당 구입단가가 10원이므로 구입예산액은 **1,580 × 10 = 15,800원**이며,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④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2, 3번

①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2025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는 비교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제3조
제3조(현금흐름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25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재무제표의 양식·과목·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 · 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에 **현금흐름표까지 포함**하여 구성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도 포함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개정 2024.7.31>

NoteBase

④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 · 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40. 국가회계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양식에서 재정운영순원가의 계산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순원가
② 비배분수익
③ 관리운영비
④ 비교환수익

정답 4번

①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9myP-jmxb1FuXLaIResYV2ZBcrss2ym5.webp

②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으로, **재정운영순원가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항목**이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9myP-jmxb1FuXLaIResYV2ZBcrss2ym5.webp

③
관리운영비는 **재정운영순원가를 계산할 때 프로그램순원가에 더하는 항목**이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9myP-jmxb1FuXLaIResYV2ZBcrss2ym5.webp

NoteBase

④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의 계산 항목이 아니다**.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는 단계는 재정운영결과의 계산이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9myP-jmxb1FuXLaIResYV2ZBcrss2ym5.webp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KKrRSchcSaursMWtwmzIv8f3qGFWiA_r.webp

NoteBase